



Pastoral Letter

The Rt. Rev. Carlye J. Hughes, XI Bishop of Newark

To be read in all congregations of the diocese, or otherwise made available to all members by email or other distribution.

2021년 6월 2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기 38:4

여정의 동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증가하는 폭력과 증오로 인해 팬데믹을 극복하는 길이 복잡해졌습니다. 일부는 우리나라의 증가하는 인종적 긴장으로 인해 예상되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활동이 감소하여 안도감에 빠져있었고, 따라서 총기난사 사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강 상태는 끝났고 인종 대상 폭력이 되살아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종적 동기에 의한 살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남미인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 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공격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적대적 행동과 긴장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 나라에서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 공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증오는 우리가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의 즐거운 미래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과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수용하기 위해 팬데믹 속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안도감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은 공포 이야기를 우리는 과소 평가했고, 이전의 모든 기록을 능가하는 수준의 총기 구매를 자극했습니다. 총기 판매량이 지난 10년 동안은 일정하게 유지되었지만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끝없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총기 판매의 증가와 함께 살인 사건과 총기난사 사건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첫 5개월 동안 239건의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5월에만 69건의 총격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힘들고 끔찍한 사실이며 어떤 면에서는 세상을 뒤흔든 바이러스보다 대응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의 것인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27).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귀를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해를 입거나 위협에 처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주고, 끔찍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용기, 편협함을 낳는 경멸에 맞설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폭력적인 증오를 종식하는 데 필요한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독특하고 놀랍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일에 대해 부족함을 느낄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도전에 맞서도록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사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특히 지난 5년 동안 사실에 대한 의견, 허위 정보 및 분쟁으로 인해 논점이 흐려졌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자주 큰 소리로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았고, 위기에서 단결하는 우리 나라의 능력을 훼손시켰습니다. 위험하게도 거짓말이 증오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증오가 인종, 성별, 성적 취향 및 종교에 근거한 끊임없는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피부색, 성별 또는 인종적 정체성에 관계 없이 우리 나라의 일부 역사는 자랑스러워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된 부분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우리 역사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전조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모르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는 없으며, 이상하게도 그 지식이 부족하면 사람, 기관 및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직자가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일부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와 국가 구조를 훼손하는 인종 차별, 억압, 정의 또는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성직자나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거의 맞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한 단어를 추가해야 그것은 '혼자'입니다. 즉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성직자 '혼자'만의 역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 차별, 억압, 정의, 사회 문제에 대한 진실을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아 말해야 할 진리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내용이 정치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참행복이 정치적으로 들립니다. 가장 중대한 계명이 정치적으로 들립니다. 십계명이 정치적으로 들립니다.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항상 정치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진실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1 데살로니가전서 5:17). 우리의 영적 삶은 팬데믹 속에서 성장하고 깊어지고 발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기도로 인도하고, 자신의 말로 기도하고, 서면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고, 기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 하시고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걱정하는 이 시대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인도하실 것이며 *공동 기도서*는 기도의 보물 창고이며 진정으로 매일 사용하는 기도서가 됩니다.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많은 사목구(parish)에는 정의, 인종, 기아, 노숙자, 주택 문제를 전담하여 다루는 사역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방법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목구의 사역을 지원하고 교구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우리 교구에는 여러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그룹의 공동 의장은 여러분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해당 그룹에 연락하려면 다음 링크를 사용하십시오.

<https://dioceseofnewark.org/form/contact-diocesan-justice-groups>

- **정의 및 평화 위원회**

공동 리더: *조디 콜드웰 (Jody Caldwell, Redeemer, Morristown) 및 다이애나 라일리 집사(Diane Riley, Grace, Madison)*

위원회는 사목구를 지원하고 교구 옹호 및 환경, 경제적 주택, 총기 폭력, 기아, 양성 평등 및 노숙자 문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 **인종 역사 위원회**

공동 리더: *켄 블레드소(Ken Bledsoe, St. John 's, Ramsey) 및 윌리 스미스(Willie Smith) 목사*

이 위원회는 우리 교구의 인종 역사를 기록하는 최선의 방법을 탐구, 수집 및 결정할 것이며, 또한 사목구에 교회의 인종 역사를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할 것입니다.

- **인종 정의 및 치유 위원회**

공동 리더: *E.V. Janopaul, St Peter's, Mountain Lakes 및 Rev. Michelle "Chellie" White, Christ Church, Teaneck*

이 위원회는 교구 내 뿐만 아니라 더 큰 공동체 및 전 세계에서 인종 정의와 치유 문제에 대응할 것이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인종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하는 무수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가르치고, 갱신하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경험한 혼돈, 혼란, 재앙의 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년 폭력을 일으킨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인도에 따라 나아간다면, 우리는 부름 받은 일을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에 혼자가 아니며 억제되지 않은 폭력, 인종적 증오, 종교적 공격에 맞서 싸우는 첫 번째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진실을 말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 대한 존경과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시간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20b).

은총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교 *Carlye J. Hughes*
XI Bishop of Newark